

전문성과 기획력, 현장경험까지 두루 갖춘 ‘IT전문가’

디지털콘텐츠 분야 육성정책 ‘Key-Man’
업계 요구사항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할 것



지난달 19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을 비롯한 IT분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사업을 관리할 프로젝트 매니저(PM) 8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디지털콘텐츠 및 SW솔루션 분야 PM으로 정식으로 위촉된 박세영(46) 박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식정보연구부장 출신의 기업가로 학문적 깊이와 연구 및 기획력, CEO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특성상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e-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디지털콘텐츠 분야 육성정책 방향의 키맨(Key-Man)으로 등장한 박세영 박사를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재 신중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국**가 전체가 기업형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기업 CEO가 직원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에서 디지털콘텐츠 및 SW솔루션 분야 PM으로 선임된 박세영 박사는 “이번 육성정책은 비전(Vision)과 골(Goal) 가운데 Goal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Goal은 구체적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달성 시기도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 전체가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박사는 이번 육성정책에서 향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을 마친 뒤 기술 이전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 관리하며, 디지털콘텐츠 및 SW솔루션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을 총괄하게 된다

박세영 박사는 이번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에 대해 “정부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일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3박자 갖춘 적임자

박세영 박사는 지난 8월초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IT분야 전문위원 선정에서 이동통신 분야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임베디드SW 분야의 김태근 디컴앤디피티로 부사장과 함께 가장 먼저 디지털콘텐츠 분야 PM으로 선정됐다. 진흥원의 이번 PM 선정 작업은 평균 14.4: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특히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경우 20: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

이런 경쟁 속에서 박세영 박사가 이번 성장동력 육성정책에서 디지털콘텐츠 분야 PM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력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PM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잣대 가운데 하나는 업계와 학계에서 두루 경험을 갖춰야 하며, 대형 사업에 대한 기획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세영 박사는 약 18년간의 ETRI 근무 경험을 통해 이론적으로 충분한 토대를 마련한 데다 지난 2000년부터 검색엔진 전문기업인 서치캐스트의 대표이사직을 지내면서 업계의 요구사항 역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그는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전산학 박

사를 취득한 것을 비롯해 미국 미주리대 CSTP의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시장의 흐름도 적절히 파악하고 있으며, ETRI에서 연구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가 초고속망 구축사업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기획력까지 갖췄다.

업계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 추진할 것

이번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에 약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대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대 산업의 연구개발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지며, 정부는 출연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5,000억~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차세대 성장산업의 주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장 및 기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와 함께 업계의 요구도 정확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세영 박사는 “정부가 민간인을 PM으로 선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혼자서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해 나가게 된다”며 “앞아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나 적임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류열풍’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세영 박사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 “외국의 경우 MS, 소니 등 세계적 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의 경우 아직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장규모가 너무 작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 우리는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예전에는 중·고등학

생들이 팝송에 심취했지만 지금은 국내 가요가 훨씬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한류열풍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세영 박사는 이와 함께 우리 주변에는 아직 개발되지 못했으나 세계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흐르듯이 전파된다”며 “수많은 문화 유산들을 디지털콘텐츠로 승화시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초로 영국인과 결혼한 인디언의 애기인 포카혼타스의 경우 실상 별다른 이야기 꺼리도 안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를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해 세계인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만들었다”며 “이 정도의 소재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박사 약력

학력사항

- 1976. 대륜고등학교 졸업
- 1980.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1982.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석사
- 1985. 07.~1989. 02. 프랑스 파리7대학 전산학 박사

경력사항

- 1982. 03.~1985. 08.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연구원
- 1985. 09.~1993. 09.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1993. 09.~2000. 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1992. 03.~1992.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공학연구실장
- 1992. 11.~1995. 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정보연구실장
- 1995. 01.~1995. 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연어처리연구실장
- 1995. 10.~1996. 09. 미국 미주리대(Univ. of Missouri) CSTP 객원 연구원
- 1997. 02.~1998. 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연어처리연구실장
- 1998. 06.~1999. 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연어처리연구부장
- 1999. 01.~2000. 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정보연구부장
- 2000.04.~2003. 08 서치캐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3.08.~현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전문위원

주요 학회 및 기타활동

- 충남대학교 겸임교수(1993. 03.~1996. 08.)
- 전자신문 '정보공원 산책' 칼럼 연재(1995. 01.~1995. 12.) - '국산 수퍼컴의 비애', '중이책이 없어진다' 등 총 15편
- 정보과학회 한국어 정보처리 연구회 부위원장(1997.~현재)
- 정보처리학회 한글공학 연구회 부위원장(2000.~현재)
- 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2000. 04.~현재)